

진화, 타락, 구속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 연대의 문제에 있지 않다. 창조론 안에서도 오랜지구와 젊은지구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과 종사이의 대진화를 인정하느냐에 있다. 창조론은 창세기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38,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종으로 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종 내에서의 변이(소진화)는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만큼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두 이론 모두 당연히 인정한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황인, 백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도 일종의 종내의 변이인 것이다. 문제는 그 변종들이 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종으로 변할 수 있느냐 즉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그동안 다양한 창조론이 있었고 또 다양한 진화론도 있었지만, 양승훈 교수가 창조론 대강좌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종과 종사이의 진화, 즉 대진화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

지난 11월 5일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에 그동안 공공연하게 창조과학을 비판하며 진화를 과학

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초대되어 유신론적 진화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그 글이 월드뷰 1월에 긴 지면에 걸쳐 소개되었다.

그의 글에는 진화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되지만, 그가 주장하는 창조의 내용은 진화론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그의 글에는 창조를 인과적 창조와 즉각적 창조로 나누었다. 그의 글에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창조론의 창조를 즉각적 창조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화석과 유사성을 통해 밝혀진 대로 공통조상으로부터 현재 생물의 종들이 진화했다는 생물의 연속성”을 가진 것을 인과적 창조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같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인과적 관계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의미의 인과적 창조는 진화라는 말의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주의 창조, 지구와 태양계의 창조, 지표면의 다양한 지질현상의 창조, 그리고 생물들의 창조까지 창조주의 창조과정은 동적과정이었으며 인과적 창조였다.”라고 그의 글은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의 변이처럼 종내의 변이는 인과적 창조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같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인과적 관계를 통해 나왔다는 주장조차 인과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진화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과학을 위한

사실적 정보의 원천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다른 동물과는 구별하여 독립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의 글에는 “창조주의 창조과정은 긴 시간적 흐름을 통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계속적 창조이며 자연세계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사용하여 창조하는 인과적 창조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어, 결국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화, 타락, 구속

그의 주장에 대하여 과학적인 관점을 포함해서 여러 관점에서 반박할 내용이 많겠지만, 우선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자들도 가장 싫어하는 이론이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이론이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의 개념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장 심각한 점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를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대로 인간이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과적 과정을 통해 진화된 것이라면 원죄의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어느 단계의 유인원인가? 오스트랄로피데쿠스인가 아니면 크로마뇽인가?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의 과정이고,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탄생했다면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주장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진화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성경의 창조는 진화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성인 창조-타락-구속은 진화-타락-구속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세속화의 흐름

작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의 주요 교단과 1,900여명의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에 연서한 명단만 116페이지나 되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교회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지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미국교회내 이런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닐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 등을 지지하는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5일 학술대회의 기초강연과 월드뷰 1월호의 글에서 진화란 말 대신에 인과적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진화였다. 왜 발표자는 자신의 주장을 진화론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화의 흐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앞으로 더욱 거세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 본 칼럼은 세계관동역회 회원의 기고로 구성됩니다.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습니다.